예비교사 수련회 선택강의

제목: 복음의 공공성 -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사회의 공의에 관하여

도입: 생각열기
- 대화 나누기
  - 한국에서 태어난 것 점수는?
    1.대박 / 2.괜찮은 편 / 3.조금 운이 나빠 / 4.이생망
  - 포스트 잇
- 상상해보기. 질문
  - 통계 제시
- *20분

우리반 졸업생 중 정규직? 비정규직?
- 초대기업 취업: 25명 중 0.6명
  - 전공 살려 직업 찾기: 25명 중 9명
  - 10대 기업 목록
    - [기사]잔공과 직업의 일치성 https://www.evernote.com/l/AKkqH1j-L7RAHHVLcj3F3c2nF0Yoo6MO9Tg
    - 출처: 경향신문. 2015. 8. 18.
    - 출처: 한국경제매거진. 2016. 7. 6.
    - 신입사원 채용 규모 (2015): 16,200명
      - 2015년 25세 인구 수: 677,187명
        - 2.39%
      - 출처: 조선비즈. 2015. 8. 28.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5.
- 비정규직: 9.5명(38.9%)
  -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 직업인: 15.7명. 나머지는 실업자+주부+학생..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5.

전개1: 학생들이 살아갈 사회 알기
- 강의 *30분
  - 사회 영역
    - 구직난
      - 비정규직 제도
        - [그래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임금 비율 108쪽
          - 제도의 기원+약점
            2006년 비정규직보호법 제정. 100인 이상 사업장에 현재서 시행,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초과해서 고용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의 입법 로비. 현실은 2년 이전에 고용계 9약에 해지있다. 평균 근속월수는 11개월. 그러므로 매년 일자리를 옮겨야 한다.
      - 사교육
        - [기사]학업 성취에 미치는 부모의 경제력 https://www.evernote.com/l/AKmv_1QVepdDH7OXpOweUysEtSD-FYRx0oU
          - 임금 격차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깨짐.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한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더 낮은 임금,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각종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임금이 더 낮으니 기업은 정규직이 할 일을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시킨다.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지만, 노동과 고용에 있어서 불평등하다.
          - 복유럽의 비정규직 제도
            참존하는 업무에는 정규직, 잠깐 필요한 업무에는 비정규직. 복이와 같은 이유로 주당 근무하는 요일을 나눠서 채용. 비정규직은 더 높은 임금.
      - 경제 영역
        - 분배의 불공정성
          - 재분배 vs 분배
            - 분배: 일차적, 원천적 분배. 기업이 한다. 기업의 수익률, 노동자, 공급자, 채권자, 정부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 남은 이익은 기업 내부에 유보.
            - 재분배: 원천적 분배를 다시 교정하는 것. 정부가 한다. 세금으로 걷은 돈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나눠준다.
          - 경제 성장의 성과 대기업의 독차지
            - [그래프] 66쪽
              - 기업저축↑ 가계저축↓, 기업부채↓ 가계부채↑
              - 국민총소득 중, 가계소득의 비중이 감소
                → 같은 비중만큼 기업소득이 증가
              - 기업의 내부 유보금 증가.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보유하기 시작. IMF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노동자 등에 수익을 배분하기를 줄이고, 기업이 소유하기 시작함.고용이 줄어듦.
              - 출처: CEO스코어. 2015. 1월.
            - [그래프] -경제성장vs실질임금 상승. 74쪽
              - 임금소득 불평등 정도. 그래프
                - IMF 이후의 노동소득의 격차 변화
                - 2000년~2007년 같은 비율로 증가 / ~2014년 국가 경제 성장 누적 24.4% vs 전산업 임금 상승 4.2%
                - 한국은 2008년 부터 경제 성장률이 우수한 나라. 어렵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선전하는 중. 그러나, 경제가 성장한 만큼의 임금(월급) 상승이 되지 않고 있다. 간극이 크다.
          - 활동
            - 이슈.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점
                - [그래프] 96쪽
                - [그래프] -임금 소득 비율의 다른 나라와의 비교. 62쪽
                - 중소기업: 300인 미만. 대기업:300인 이상.
                - 임금의 격차가 크다
                  1900년대 후반에는 둘 사이의 임금격차가 97%수준. 엄마 만큼.
                  IMF이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늘어나고, 임금 격차는 더 커졌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가 됨
                - 구직자들이 대기업으로 몰린다. 중소기업은 채용자가 적어서 어렵다. 한번 취업하면 대기업으로 가기 힘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더 안간다.
                - [그래프] 그림15. 84쪽
                - 최상위층의 소득이 급격히 증가. 최하위층은 오히려 감소. 12년간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더욱 감소. 최상위층의 100%는 천만원. 최하위층의 100%는 100만원이라 생각할 때, 단순히 29만원 차이가 아니라, 270만원 차이다.
                - IMF로 중산층의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 저소득층의 소득이 경제 성장만큼 늘어나지 않음. 소득 불평등이 증가.
                - 4.7배. OECD회원국 중 4번째로 불평등 심각. 비정규직은 제외한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면 5.9배(그림2). 이를 기준으로 하면 1위인 미국의 5.1배 보다 심각.
              - 세대간 진보와 보수의 극심한 성향 차이
                - 현상
                - 대선 지지율
                -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율(2015. 8월) 3년차
                - 잘하고 있다
                  20대 12% 30대 8% 40대 24% 60대 72%
                - 보통 20, 30대는 미래세대, 40, 50대는 현재세대, 60~는 과거세대.
                - 미래세대의 10명 중 8명이 잘 못한다는 데, 과거세대의 7명이 잘했다고 여긴다. 과거와 미래 세대의 정치적 판단이 완전히 반대이다. 두 세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넓혀서는 간극이다.
                - 사회적 문제의 원인, 중요도를 서로 다르게 본다. 그것의 해결방법, 정치적 판단이 반대이다.
                - 원인
                  - 급속한 역사 흐름. 과거사의 주역들이 살아있다. 당사자의 일이라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
                  - 정치인들의 역량. 지역주의. 학벌주의. 우리가 남이가.
                  - 남북대치상황. 안보장사. 인권, 평등 등의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안보. 전쟁을 겪은 주역들이 아직 살아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2015년
                  - 매출액
                  - 인건비
                  - 순이익
                  - 고용
                  - 2000년
                  - 2014년
                - 이익은 많이 가져가고, 고용은 줄인다. 대기업이 순이익이 많다. 고용은 적다.
                - 대기업은 많은 이익을 바탕으로, 자동화 효율화를 한다. 그래서 고용은 줄인다. 이익은 더 많이 남긴다.
                  중소기업은 이익이 적어 자동화 효율화에 투자가 적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든다. 이익은 적다.
                - 대기업의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현대자동차. 부품의 가격을 현대가 정한다. 을해는 일마로 해. 그럼 하청업체는 따를 수 밖에 없다. 인그림 다른 1청으로 옮긴다.
                - 19대 대통령선거 연령별 득표율
                  - 단위: %
                  - 문재인
                  - 홍준표
                  - 안철수
                  - 유승민
                  - 심상정
                  - 20대 (19세포함): 47.6 / 8.2 / 17.9 / 13.2 / 12.7
                  - 30대: 56.9 / 8.5 / 18.0 / 8.9 / 7.4
                  - 40대: 52.4 / 11.5 / 22.2 / 6.5 / 7.0
                  - 50대: 36.9 / 26.8 / 25.4 / 5.9 / 4.5
                  - 60대: 24.5 / 45.8 / 23.5 / 4.1 / 1.6
                  - 70대 이상: 22.3 / 50.9 / 22.7 / 2.6 / 0.9
                  - *자료: 지상파3사 공동 출구조사 그래픽: 이상년 디자이너
                  - the 300
      - 사교육
        - [기사]학생행복도 최하위권 https://www.evernote.com/l/AKkMTEKv5mJPOLuYIO3YvIgmEpQfshzLoo8
          - 분배: 공공성 vs 시장성
            - 기업저축↑ 가계저축↓, 기업부채↓ 가계부채↑
            - 국민총소득 중, 가계소득의 비중이 감소
              → 같은 비중만큼 기업소득이 증가
            - 기업의 내부 유보금 증가.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보유하기 시작. IMF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노동자 등에 수익을 배분하기를 줄이고, 기업이 소유하기 시작함.고용이 줄어듦.
            - 출처: CEO스코어. 2015. 1월.
          - 임금소득 불평등 정도. 그래프
            - IMF 이후의 노동소득의 격차 변화
            - 2000년~2007년 같은 비율로 증가 / ~2014년 국가 경제 성장 누적 24.4% vs 전산업 임금 상승 4.2%
            - 한국은 2008년 부터 경제 성장률이 우수한 나라. 어렵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선전하는 중. 그러나, 경제가 성장한 만큼의 임금(월급) 상승이 되지 않고 있다. 간극이 크다.
            - 최상위층의 소득이 급격히 증가. 최하위층은 오히려 감소. 12년간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더욱 감소. 최상위층의 100%는 천만원. 최하위층의 100%는 100만원이라 생각할 때, 단순히 29만원 차이가 아니라, 270만원 차이다.
            - IMF로 중산층의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 저소득층의 소득이 경제 성장만큼 늘어나지 않음. 소득 불평등이 증가.
            - 4.7배. OECD회원국 중 4번째로 불평등 심각. 비정규직은 제외한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면 5.9배(그림2). 이를 기준으로 하면 1위인 미국의 5.1배 보다 심각.
          - 학생행복지수 최하위권
            능욕타임즈가 묘사한 한국 학생들의 생활.
            OECD 23개국 중 19등. 2009년부터 6년 연속으로 꼴찌.
            - 학생생활시간 (주간, 시간) 및 건강, 학업부담, 학대경험, 건강관리 등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자료: 통계청
          - 부모의 소득이 높을 수록 진로를 더 준비.
            - 학생의 경제적 여건 차이 진로성숙도: 진로문제를 대처하는 능력
            - 저소득
            - 중소득
            - 고소득
            - 진로성숙도
            - 진로계획 없음 비율(%)
            - (자료: 정책제안 국가발전정책토론회)
          - 의무에 시달리는 아이들.
            지는 시간 빼면, 하루에 80%를 해야하는 일들로 채우는 아이들.
            자신의 꿈을 찾는 일, 세상을 관조하는 여유, 자기주도적인 삶은 깊이 잘 수 없는 구조이다. 경쟁없는 방법 배우지 못한다. 학교 폭력, 사회 관계에서의 기쁨이 줄어든다.
          -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서울대 합격률이 달라진다.
            - 진학인적자본 가준 25개구 서울대 합격 확률 (단위: %)
            - 진학인적자본 = 부모의 배경 등을 제외한 공부 노력 태그년 정재력
            - 2014년 서울대 합격 확률
            - 진학인적자본 가준 합격 확률
            - 서초구
            - 노원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양천구
            - 마포구
            - 성북구
            - 광진구
            - 동작구
            - 강서구
            - 중랑구
            - 은평구
            - 영등포구
            - 구로구
            - 동대문구
            - 서대문구
            - 성동구
            - 금천구
            - 관악구
            - 중구
            - 종로구
            - 용산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중랑구
            - 동대문구
            - 성북구
            - 서대문구
            - 은평구
            - 강북구
            - 도봉구
            - 금천구
            - 관악구
            - 동작구
            - 구로구
            - 강서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마포구
            - 용산구
            - 중구
            - 종로구
            - 성동구
            - 광진구
            - 강동구
            - 송파구
            - 강남구
            - 서초구
            - 0.0%
            - 0.5%
            - 1.0%
            - 1.5%
            - 2.0%
            - 2.5%
      - 사교육 영역
        - 학생생활시간 (주간, 시간) 및 건강, 학업부담, 학대경험, 건강관리 등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자료: 통계청
        - 의무에 시달리는 아이들.
          지는 시간 빼면, 하루에 80%를 해야하는 일들로 채우는 아이들.
          자신의 꿈을 찾는 일, 세상을 관조하는 여유, 자기주도적인 삶은 깊이 잘 수 없는 구조이다. 경쟁없는 방법 배우지 못한다. 학교 폭력, 사회 관계에서의 기쁨이 줄어든다.
        - 학생행복지수 최하위권
          능욕타임즈가 묘사한 한국 학생들의 생활.
          OECD 23개국 중 19등. 2009년부터 6년 연속으로 꼴찌.
    - 활동
      - *10분

전개2: 성경의 사회적 정의 알기
- 강의 *30분
  - 사적 복음
    - 종교를 사적 영역으로 제한해왔다
      - 고지론 vs 지지론
      - 복의 의미
        - 아브라함의 복
          창12:1-2 1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 p.125 아브라함의 복의 본질은, 그에게 서 이어진 다윗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 p.125 아브라함의 이름이 커지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묵상하고 아브라함의 삶대로 살을 따라 산다는 의미
          - "내가 네게 지시할 땅"
            - 아브라함의 복은, 특정한 땅을 얻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삶의 방식, 태도를 따라 사는 삶이다.
        - 사적 복음 vs 공적 복음
          - p.19 동성고급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종교를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국한해왔다. 종교를 개인의 성품을 위대하고 의기내면의 고뇌와 번민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간주한 것이다. 사회의틀이나 구조, 문제는 결코 건드리지 않고서 오로지 개인의 개인의 바른 윤리, 개인의 바른 실천에만 몰두하게 한다.
            -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 개혁주의 신앙을 거치면서 형이상학이 스스로의 영역을 지키려 선을 그는 것.
            - <완전한 진리> 냉시 피어시
            - p.17 복음, 성급, 보증같은 개념을 단순히 내세에서 받을 복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그저 나와 함께하시고, 내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고, 내 짐을 인도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기 쉽다.
    - 활동
      - *10분
  - 복음의 공공성
    - 성경의 가르침: 정치적 성격
      - 근거
        - 구약은 세상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한다
        - '천히 그의 말로 다스리실 것이라' _사40장
          - 다스리다. 그 행위의 의미는? 하나님은 다스리신다고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이해하는가?
            - ex 이집트의 열가지 재앙 → 현재로 치면, 경제 위기, 메르스 사태, 구제역, 녹조에 해당하지 않을까
          - 구약의 하나님의 통치는 그러한데, 현대의 하나님은 그저 '영적으로'- '통치 하시니? 그 분은 개인구원과 복주는 것, 천국 가는 것뿐만 '통치'하시기로 스스로 관심을 줄이기로 하셨을까?
          - 예레미야46-51장
          - 에스겔25-32장
          - 아모스1:3-2:3절
          - 이사야13-23장
      - 의미
        - 1.렘22:1-5 to 이스라엘 공평과 정의
        - 2.겔45:9-10 to 통치자들 정의와 공의
        - 3.창18:19 to 아브라함 공의와 정의
          - 공의=메다카/tzedakah
            -공정, 의로움
            -의로운 인격적 소양
            - 정의=미슈파트/mishpat
            -재판관에 의한 판결
            -판결의 적법성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맞게
            - 오늘날의 적용
            -우리 사회의 메다카&미슈파트는?
            -사회 구조, 틀의 문제이다.
            - 현대자동차 단가 후려치기
            - 미스터피자 갑질
            - 남양유업 갑질
            - 동남아 이주 노동자 착취 vs 내국인 일자리
            - 여성 혐오 범죄
            -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 정치 검찰
            - New Note
            - 영화 <자백> 엔딩 크레딧
            - 활동: 작성-나눔
            - 엡7:4-7
              - 1.이웃을 사이에
              - 2.정의를 행하여
              - 3.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 4.무죄한 자의 피
    - 공적 복음의 합당한 태도
      - 부르심
        내가 그로 그 자신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메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특하였노니_창18 | 19
        -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 평화를 위한 기도
        너희는 느냐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_렘29:7
        - 이 사회의 문제들을 외면하고 자기만의 성을 쌓으면서, 그리스도인이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돈, 출세, 경쟁에서의 승리라는 성 안에서 자기만 살 수 있을까. 정신승리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 성읍이 평안하지 않으면 개인도 평안할 수 없다.
          기울고 망해 가는 사회에서 나 혼자 평안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는 없다.
          - 자신들이 살아가는 곳의 평안을 빈다는 것은 그 곳에 평화에 합당한 일이 있기를 비는 것이다
      - 행동
        마5:13 '세상의 소금'
        - 소금의 특성
          - 음식 속에 자신의 모습없이 완전히 녹아든다
            - 자신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맛을 변화시킨다
            - -이 세상에 녹아들어야 한다. 겉돌면 안된다.
              -현세에 대한 애착없이 사후세계만을 바라면 안된다.
              -성육신. 사람들과 같은 고민, 같은 문제들로 씨름해야 한다.
              - p.28 당장 미남 사람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래 머물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상의 구조와 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세상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법과 식에 따라 회복되도록 애쓴다.
              -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상황과 현실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사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땅의 정치 현실에 무관심할 수 없을 것이다.
  - 활동
    - *10분
- 정리: 결단하기
  - 활동: 선언문 만들기
    - 나의 제자들이 ( )한 세상에 상게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나는 ( )을 할 것이다.
    - *선언문 양식 디자인